

한국사찰경관의 원형연구

황민하* · 이화영* · 홍광표**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불교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이다(이기백, 1990: 89). 불교는 인도에서 종교로 성립되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을 경유하여 전래되었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다¹⁾. 따라서, 불교가 전파되면서 조영되기 시작한 사찰 역시 중국의 사찰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사찰형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의 사찰은 기본적으로 중국사찰과 형식적 동질성을 지닌다. 이러한 초기사찰형식은 그 이후 한국의 자연과 문화에 영향을 받아 점차 한국 고유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변화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찰경관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초점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래된 사찰에서 계속해서 계승발전된 것은 무엇이고 소멸된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한국사찰경관의 원형을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문헌연구에 기초하며, 이차적으로는 현장답사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 혹은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문헌연구에서는 인도로부터 시작된 사찰의 형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파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현장답사에서 얻은 자료는 문헌자료에서 얻은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 위요, 방향이라는 3가지 경관언어를 통해서 그것의 원형과 변형을 규명하게 되는데, 각각의 경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파되고 한국의 사찰은 그 중에서 어떤 과정에 놓이게 되는가를 통해 한국사찰의 원형을 읽으려고 노력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중심

인간이 만든 공간이나 조형물은 물론 자연의 경우에도 중심

은 그 공간이나 조형물의 의미를 일러주는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중심에 대한 이해는 인공경관이나 자연경관의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사찰의 원시형은 사리탑인 스투파(Stupa)이며, 이것은 거대한 露塔形式이었다(홍광표, 1992: 103). 그 후 수도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카이티야(Caitya)나 비하라(Vihara) 형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 수도원의 평면 형태는 사각형 혹은 원형으로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스투파가 배치되고 주변으로 방이 둘러싸는 공간구성양식을 보이고 있어 스투파에 대한 중심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백승길 역, 1990: 150~151). 간다라시대가 되면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자 스투파 내부에 불상을 모시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투파가 가진 종교적 상징성이 훼손되지는 않았으며, 스투파가 가진 중심성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찰 역시 스투파를 중심으로 사찰이 구성된다. 단지 스투파가 독립적으로 세워져서 이것이 사찰의 기능을 전담하는 단순한 형태의 사찰 형식으로부터 스투파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는 형식적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때부터 회랑이라는 건축적 요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투파에 대한 중심성이 주변의 건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된 중국의 사찰형식을 살펴보면 인도사찰의 전형인 스투파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기록상으로 보이는 최초의 중국사찰은 동한 영평 10년(67) 낙양의 백마사인데, 이것은 원래 빈객을 접대하던 官署 鴻臚寺를 개건하여 만든 것이었다(정옥조 외 역, 1995: 158). 그 후 중국의 사찰은 계속해서 관서나 귀족관료들의 주택형식을 토대로 조영되어서 인도나 동남아시아 사찰과는 달리 일직선 축을 중심으로 공간이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북위시대의 저작인 『낙양가람기』에는 낙양에 지어진 영녕사에서 탑을 사찰의 중앙에 배치하고 불사리를 봉안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정옥조 외 역, 1995: 158). 한편 중국에서도 인도와 같이 탑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탑 내에 불사리 대신 불상을 모시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을 보면, 불교 전래초기의 중국사찰은 탑을

사찰의 중심에 배치하는 인도사찰의 전통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寺塔인 파고다는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조영된 스투파와는 형태가 전혀 달랐으며 그것의 축조재료 역시 달랐다. 즉, 파고다는 인도의 스투파와는 달리 여러 층의 구조체이며, 매우 높은 조형물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파고다가 중심이 되던 중국의 사찰은 동진초기에 쌍탑이 출현하면서 탑의 중심성이 희석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점차 불전에 모신 불상이 신앙의 주된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사찰에서 파고다를 조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다.

한국의 초기사찰은 중국의 사찰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고구려 초기사찰인 금강사, 백제 초기사찰인 미륵사지, 신라 초기사찰인 황룡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즉, 한국의 경우에도 불교 초기단계에서 조영된 사찰은 탑을 공간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으며, 중국사찰과 마찬가지로 탑 주변에 회랑이나 종교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건물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이후 쌍탑형 사찰이 나타나게 되면 사찰에서 탑이 가지는 중심성은 초기사찰에서와 같이 분명해지지 않는다. 특히 탑의 규모는 전 시대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게 되며, 재료는 석조로 변하게 된다. 이 석조탑은 조선시대까지 형식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유지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한국사찰이 다른 나라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전형적 경관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 불교 전래초기의 평지형 사찰이 화엄십찰이나 구산선문과 같은 산지사찰로 변화되면, 사찰에서 탑의 중심성이 크게 상실되고 오히려 주 불전에 모신 불상이 사찰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주 불전에 모신 불상이 사찰의 중심으로 기능하게 되는 현상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사찰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것은 사찰에서 탑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 공간구성으로부터 불상이 중심이 되는 수직적 공간구성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중국의 사찰형식을 원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위요

인도의 초기사찰형식인 스투파는 독립적인 반구형 조형물로 시작하였다. 스투파와 같은 독립적인 구조체는 원거리로부터의 가시성이 뛰어나 불사리에 대한 존송의 수평적 범위를 넓혔으며, 신홍종교였던 불교의 상징성을 외부로 드러내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모이게 되고, 사찰에서 담당하는 기능도 복잡화되면서 점차 스투파 주변에 회랑을 두거나 스투파의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연결되는 방을 두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스투파에 대한 중심성이나 상징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었고 항상 스투파가 중심이 되어 공간을 구성하는 전통성은 유지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사찰 역시 인도의 사찰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는 스투파가 독립적으로 사찰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스투파를 중심으로 회랑을 두거나 건물을 앉히게 된다. 동남아시아 불교사찰의 경우는 인도의 사찰보다는 위요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보다 광범위해지고, 그에 따른 기능성이 복합적으로 수용된 까닭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사찰은 파고다 주변에 회랑이나 건물을 두어 중심을 위요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위요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폐쇄적인 경관성을 보인다. 더구나 회랑이나 건물에 의해 위요되는 공간이 여러 개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공간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폐쇄성이 지속되는 형식적 특징을 보이게 된다. 중국사찰의 이러한 배치형식은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사찰과는 전혀 다른 배치형식인데, 이것을 보면 중국의 사찰은 인도사찰의 기본적인 이념은 도입하였으나, 중국 건축양식의 기본적인 틀을 사찰에 적용하여 완전히 중국식으로 변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초기사찰에서도 탑을 위요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회랑이나 건물이었다. 회랑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하였고, 승방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찰이 산지로 입지를 옮기고 난 후에도 여전히 위요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사찰은 산지로 옮겨가면서 회랑이 소멸되고 건물에 의해서 위요되는 형식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건물에 의해서 공간이 위요될 경우에는 회랑에 의한 위요의 경우보다 위요감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주변의 자연과의 교호나 중첩의 정도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산지로 입지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과의 친화적 배치형식은 중국사찰을 원형으로 하였으나 한국적 자연환경을 수용한 한국 고유의 사찰형식이라고 하겠다.

3. 방향

인도사찰은 4방향 진입의 체계를 가진다. 이것은 스투파가 원형이며, 특별히 주변에 건물을 두지 않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랑이 주변을 위요하게 되어도 이러한 4방향 진입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스투파가 복합적인 공간성을 가지게 되면서 입구를 만들게 되었고, 입구에서부터 긴 과정적 공간을 두어 신도들을 중심으로 인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적 공간은 동남아시아 사찰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통과의례적 개념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되면, 입구가 시작되는 곳이 곧 성과 속의 경계가 되어 방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중국의 사찰은 궁궐의 형식을 전체적인 배치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졌다. 즉, 여러 개의 문을 두고 그 문을 통과하여 중심에 다다르는 통과의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산지로 사찰의 입구가 바뀌어도 이러한 진입과정은 변함없이 나타나는데,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사찰이

인공성이 강한 과정적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한국의 초기사찰 역시 속의 공간인 외부로부터 사찰의 최 외곽 경계에 건축한 남문과 담장에 설치한 중문을 거쳐 중심공간에 다다르게 되며, 그 중심공간에는 탑이 놓여진다. 그러나 남문과 중문은 입구로서의 형식성만 가지는 것으로 긴 과정적 공간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던 것이 산지사찰이 되면 사찰의 상징적 입구가 되는 산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인 입구인 일주문-사천왕문-불이문-누각을 거쳐 중심공간으로 연결되는 긴 과정적 진입체계를 갖추게 된다.

IV. 결론

연구의 결과 한국사찰은 인도로부터 전파되어 중국 고유의 형식성을 보이는 중국사찰의 형식을 원형으로 하여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사찰은 인도사찰에서 나타나는 스투파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성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는 하였으며 중국고유의 건축기법을 반영한 중국식 사찰형식을 창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찰이 중심, 위요, 방향의 세가지 경관언어

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이러한 중국의 사찰형식을 원형으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찰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사찰과는 또다른 형식적 변화과정을 거쳐 한국고유의 경관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인도나 동남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초기 한국사찰의 원형으로 작용하였던 중국의 사찰경관과도 차별화되는 한국적 사찰형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개과정이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가야불교의 경우 인도로부터의 전래설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인용문헌

1. 이광로 역(1986) 한의 건축문화. 기문당.
2. 이기백(1990) 한국사신론 신수판. 일조각.
3. 정옥근 외 역(1995)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4. 한국전통조경학회(2009) 동양조경문화사. 대가.
5. 홍광표(1992) 신라사찰의 형식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홍광표, 이상윤(2001) 한국의 전통조경. 동국대학교 출판부.